

# 시온 주보

제24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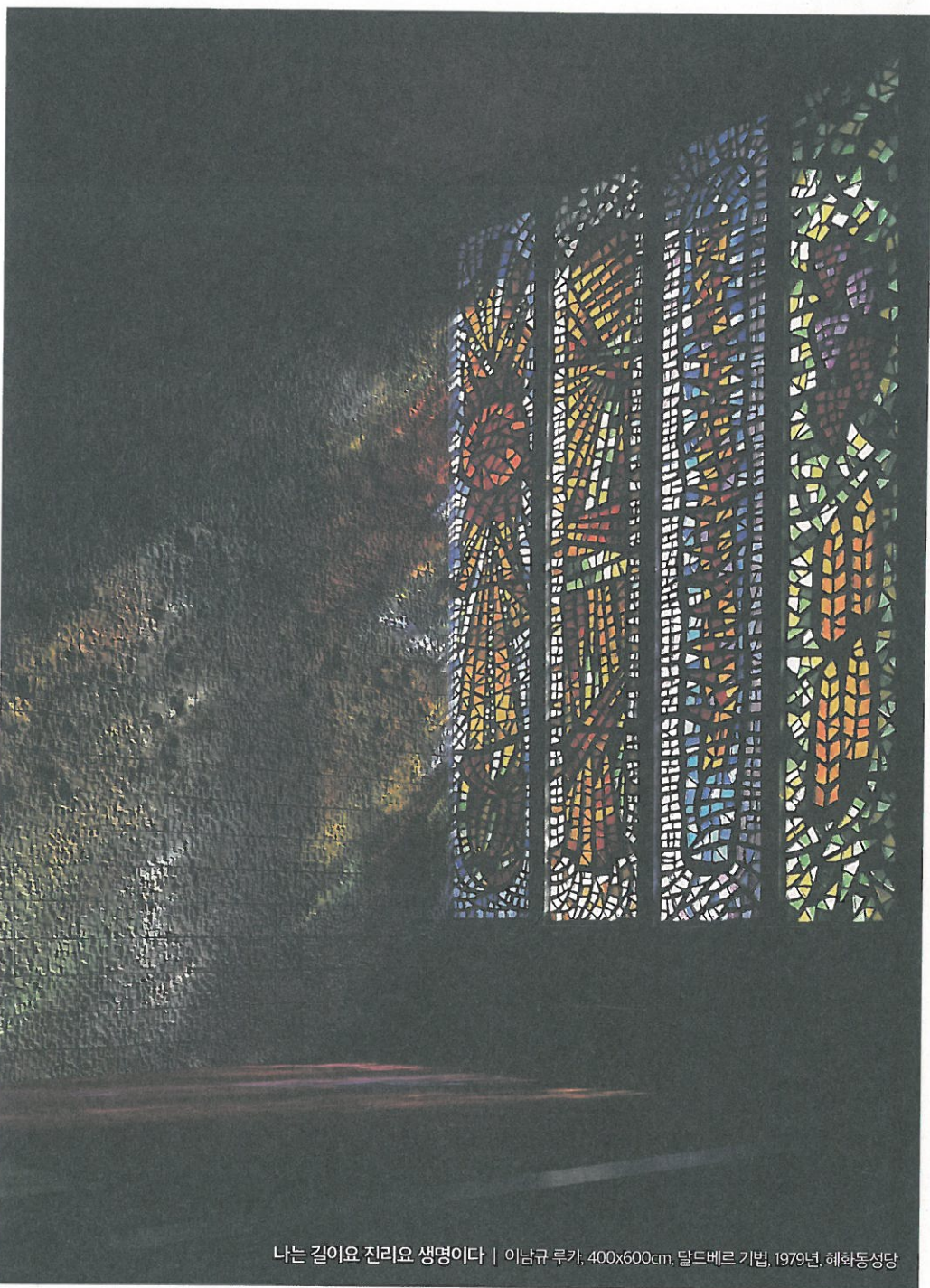
2023년 5월 7일(가해)

부활 제5주일  
(생명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 이남규 루카, 400x600cm, 말드베르 기법, 1979년, 해화동성당

## 입당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 제1독서 | 사도 6,1-7

## 화답송 |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제2독서 | 1베드 2,4-9

## 복음환호송 | 요한 1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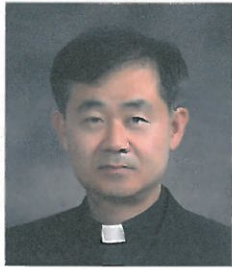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복음 | 요한 14,1-12

##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박정우 후고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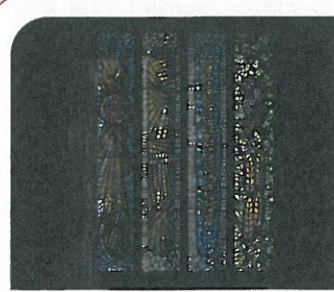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믿는 이들이 이 소명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따라서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대한 공격입니다. 다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정당방위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에 더하여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욕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형 제도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에 폐지를 요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는 무고한 생명에 대한 폭력과 파괴가 만연합니다. 카인의 살인부터 인류 안에 스며든 생명에 대한 폭력이라는 악은 오늘날에도 전쟁, 학살,

인신매매, 아동 및 노인 학대 등의 형태뿐 아니라, 낙태, 안락사, 인간 배아 연구 등이 합법적인 형태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죽음의 문화’를 확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을 향한 폭력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화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태와 안락사처럼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며 약한 생명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지적처럼 우리 시대에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의 “규율 없는 자유”와 제한 없는 욕망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22항)

생명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호소처럼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느님을 잊어가는 이 세대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 신자들이 먼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섭시다. (생명의 복음 5항, 95항 참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길, 진리,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게 됩니다. 달드베르 스테인드글라스 창으로 쏟아지는 빛은 영원한 주님께로 가는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참된 빛은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이정민 세실리아 | 아나운서

## 나를 해방시킨 한 마디 “괜찮다”

검은색 치마 교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묶은 채 캄캄한 골목을 켄걸음으로 걷어가는 여고생.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제 모습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내내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 등교 전 혼자 성당에 들렀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 다. 집에서 성당까지는 그 나이 아이의 걸음으로 15분 거리였는데 집을 나서 는 시각은 항상 6시 언저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날 골목길 어딘가에서 개라도 짖으면 너무 무서워 전력 질주하곤 했지요. 그렇게 성당에 도착하면 문이 잠겨 있는 날이 많았습니 다. 성전에 들어가는 날과 성전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날이 반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 문은 항상 열려있게 됐습니 다. 어떤 아이가 매일 새벽에 오는 것을 알게 된 본당 신부님께서 더 일찍 문을 열어두게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성당에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새벽 미사를 드리거나 성체조배라도 했다면 그럴싸했겠지만 들으시기 허무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20분쯤 앉아 있 다 나오는 게 다였습니다. 캄캄한 대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 감실의 작은 불빛을 따라 걸어간 다음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냥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나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 다.

그리고 그 일상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 다. 과연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당시 제 마음은 무척이나 추웠습니 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 은 시림이었습니 다. 어쩌면 다른 사춘기 소녀들도 다 겪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저에겐 그 당시 외로움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 다. 안타깝게도 위로받을 곳도 딱히 없었습니 다.

힘들다고 청원의 기도도 해보고 도망가고 싶다고 주님께 떼도 써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참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들어가게 됐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 다. 맥이 다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마음이 무장 해제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 다. 아무 걱정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심지어 생각도 없어지는 붕 뜬 기분이었습니 다. 그런데 그 느낌이 참 따뜻했습니 다. 그리고 그때 마침 주님의 음성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 다. “세실리아야, 괜찮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 다. 괜찮다. 그세 글자는 이제까지 들었던 최고의 위로였습니 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음성을 들으려, 그 온기를 느끼려 새벽부터 신발을 신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실 앞에 앉아 그저 한껏 위로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 기운으로 하루를 살아냈습니 다.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 제게 주님이란 존재는 ‘새로고침’ 되었습니 다. 조건 없는 사랑의 주님, 덮어 두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요. 이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굳이 캄캄한 성전 문을 열진 않습니 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고요.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모 성일

(성모 성일은) 풍성한 하느님 자비의 선물이 성모님의 어좌에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쏟아지는 달입니다.

-성바오로 6세 교황 회칙 <Mense maio> 중에서-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심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너를 보내게 되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건강하게 낳은 건지도 모르겠구나. 너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겠지. <중략> 미안해. 아가야. 꼭 찾으러 갈게. 꼭 찾을게. 아가야...

벚꽃이 흐드러지던 2022년 봄날, 수연(가명, 9개월)이는 그렇게 엄마와 이별했습니다. 옷섭에 남겨진 편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 이력과 아기에게 남기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하얀 배냇저고리를 입고, 하얀 속싸개에 덮여 연두꿈터에 왔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머리숱이 까만 수연이는 며칠 뒤 배꼽이 떨어졌습니다.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라던 옛 어른들 말씀과 같이 수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수연이가 생활하는 방에는 배꼽 붙은 친구들이 여럿 들어왔고, 함께 뒹굴고, 기어다니며 걸음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두꿈터의 아이들은 느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연두꿈터는 2014년 12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들과 어른에게 학대, 방임된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예수회에서 설립한 (재)기쁨나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까지 40명 가까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아이들 키우는 집이다 그렇듯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잠꾸러기들 깨워 씻기고, 밥 먹여 유치원을 보내느라 난리 톱입니다. 틱틈이 간식도 챙겨 먹이고, 잔병치레하는 녀석들도 적지 않아 병원 문턱이 닳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서 다른 집 친구들처럼 피아노며 태권도, 미술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고, 겨우 배밀이를 시작하는 꼬물이들도 신체 및 두뇌 발달을 위한 오감 자극 교육이 필요하지만, 보조금과 후원금만으로 40명이 넘는 대기족의 살림과 교육을 충당하다 보니 빠듯한 살림살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입양을 준비하는 아기들은 좋은 양부모를 소개받으면 여러 차례 만나 서서히 정을 들인 후에 새 가족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원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연두꿈터 가족들은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랑만으로 아이들의 삶을 채우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40년 넘은 오래된 학교 건물을 수리하며 사는 터라 벽체는 단열에 취약하고, 보일러는 자주 속을 썩입니다. 놀이 공간의 조형물과 쿠션 벽은 10년이 다 돼 가니 유행은 제쳐두고 내장재가 드러납니다. 혹여 개구쟁이들이 그 낡고 헤진 곳에서 뛰어놀다 다치기라도 할까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입양을 준비하는 아기와 예비 양부모님이 만날만한 장소가 없어 사방이 뚫린 공용 공간에서 만나야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옆을 지나며 물끄러미 바라보는 다른 녀석들의 표정도 가슴에 박힙니다.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연두의 아이들이 남들과 같은 꿈을 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5월 6일~6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꿈나무마을 연두꿈터'를 위해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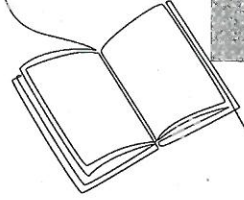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http://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위선적 신앙의 위험성 (사도 4,32-5,11)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참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만, 정반대로 위선적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바르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하나니아스라는 인물의 비교를 통해 위선적 신앙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줍니다.

앞서 2,42-47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친교는 친목 도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는 나눔의 친교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서 나눔의 친교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돈을 교회에 봉헌했는가 안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금액이 많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봉헌했느냐가 더 중요함을 하나니아스의 일화를 통해 전해줍니다.

하나니아스는 요셉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재산을 바쳤는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 여부가 아니라 판 값의 일부를 떼어 놓곤 교회에 다 봉헌한 척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사피라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둘 다 교회에 재산을 바치는 위대한 일을 하

고서도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려는 위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 서간 2,1-13은 교회 안에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생기는 차별대우가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발판 밑에 앉도록 했던 것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야고보 서간은 이 차별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 12,41-44; 루카 21,1-4 참조) 즉 하느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빈곤한 과부의 전 재산인 렵톤 두 닢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시기”(사편 31,24)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위선과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인이 자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위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이 아닌 솔직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위선적 신앙의 삶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목숨을 빼앗아 갔듯이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솔직하고 진실한 신앙은 하느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 과학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

“나는, 과학이 하느님의 존재를 반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리처드 파인만,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지난 연재 때 과학의 ‘방법론적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학은 오직 양(量)으로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요소만 다루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과학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물론이나 무신론이 아니라,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자연을 탐구하기 위해 임시로 하느님의 존재를 괄호 안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이들은 이 ‘방법론적 무신론’을 말 그대로의 무신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과학의 이름을 빌어, 세상엔 오직 물질뿐이고 신(神)은 없으며, 종교와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는 ‘방법론적 무신론’과 진정한 무신론을 혼동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찬양하고 맹신하지만, 실상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과학의 방법론을 잘 알지만, 과학의 힘을 너무 과신하기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짓이요 허상으로 봅니다. 전투적 무신론자로 잘 알려진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즉,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하느님이나 신앙을 부정하는 근거는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로지 과학만을 신봉한다는 뜻에서 ‘과학주의’라 불리는 이 편협한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믿음은 오늘날 대단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는 현대 자연과학이 이뤄낸 눈부신 과학문명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휘황찬란한 과학의 성취를 일단 괄호치고 차분히 따져보면, 과학으로 하느님이나 신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과학은 그 모두를 자신의 방법론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정직한 과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은, 과학으로는 신의 존재를 반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과학자는 뒤이어 고백합니다. 자신은 신을 믿지 않으며, 종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리들을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으로 뛰어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한 건전한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몇몇 무신론자들이 과학의 이름을 내세워 하느님과 그분께 대한 신앙을 한사코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거나 과학으로 포장된 본인들의 신념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믿음’을 함께, 조화롭게 어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과학에 깊이 몸을 담으면 신앙을 갖기 어려워합니다. 신앙은 과학을 거스르는 않지만 과학을 훌쩍 넘어서는데, 파인만이 말하듯 과학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과학자가 그것을 넘어 하느님을 믿는 일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고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감독\_변규리

지난 2021년 2월 22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동성 간 결합의 축복과 관련된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헌을 통해 '가톨릭교회는 동성애자는 축복하더라도 그들의 결합은 축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답변문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성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그들을 향한 혐오와 배척 같은 부당한 시선에는 저항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요구되는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한 축복을 해줄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지닐 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편집자였던 오스트리아 빈 교구의 크리스토퍼 쇠보른 추기경은,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녀가 바라는 축복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동성애를 느끼거나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 평론(2021년 여름호 제32호) 참조]



영화 '너에게 가는 길'

## 자모(慈母)신 교회

이 같은 쇠보른 추기경의 설명은 신앙 교리성이 발표한 신학적 원칙을 사목적으로 적용할 때 사목 대상자들을 향한 더욱 섬세한 시선, 즉 '어머니의 시선'이 요구된다는 사목적 차원의 첨부라고 봄이 옳을 것입니다.

변규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은 게이 이들을 둔 어머니 '비비안'과 트랜스젠더 이들을 둔 어머니 '나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비안과 나비는 '성 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사용하는 두 어머니의 활동명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향의 자녀를 둔 두 어머니는 자녀를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여느 어머니들처럼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며 자녀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함께 저항합니다. 이같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는 비비안과 나비, 두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며 쇠보른 추기경이 언급한 '교회를 어머니로 보고 싶어 한다.'는 문장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화는 엔딩 크레딧에서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커밍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아웃(coming out)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가까이 손을 내미는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며, 여기에 관객들도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탄생과 돌봄의 맥락에서 필연적으로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여성성에 종속된 모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뒤처지거나 길을 잃은 이들과 함께 먼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는 '용기'와 숨가쁘게 밀려오는 사태를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어머니가 품은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표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가톨릭 기도서 33쪽)**

**오늘(5월 7일)은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

엄옥순(라파엘라, 전주교구 00본당)이라는 인물이 수년 동안(2003-2022년)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톨릭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 치유'와 '사적 기도'를 빌미로 신자들로부터 예물(금전)을 받으며 신앙 이탈 행위를 일삼아 왔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께서 조사 과정을 통해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과 '신앙 이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023.4.12)

**서유석(사도요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서유석(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지난 4월 20일(목)에 선종하셨습니다. 서유석 신부님은 1954년 경남 진해에서 출생하여 1983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면목동성당, 군중, 군중교구 파견, 고척동·석촌동성당, 서울대교구 꾸르실로 담당, 제15-B 지구(양천구) 지구장(현. 제18 양천지구장) 겸 양천성당, 특수사목지 담당으로 사목하셨습니다. 4월 22일(토)에 장례 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5월 8일 심재덕 마르코 신부(37세)
- 1971년 5월 9일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64세)
- 1979년 5월 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1982년 5월 8일 백일성 도미니코 신부(50세)
- 2008년 5월 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 2012년 5월 8일 박준영 루도비코 몬시뇰(70세)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희망**

**교구청 알림**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7월7일~15일(8박9일)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테라사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전영준 신부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5월13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5월22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말녀 야기페, 여지훈 야고보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제50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전 신자 및 후원회원  
 때, 곳: 5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성당  
 주제 및 강론: 이재돈 신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화)~24일(수)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여)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8차 미사 5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성천 본당, 영유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된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제2회 성미술 소품전: 1전시실  
 김옥순 수녀 개인전: 2전시실  
 The Moment, 새로운 시작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3일(수)~11일(목)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 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10-5760-6638 단장

**'슬픔 속 희망찾기' 집단상담 및 유가족 미사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대상: 초기 자살유가족 / 진행: 황순찬 교수  
 때, 곳: 4회기 6월9일 · 6월16일 · 6월23일 · 6월30일 10시~13시, 가톨릭회관 1층 소회의실  
 인원: 10명(인원수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 5월31일까지 전화 및 홈페이지(3079.or.kr) 접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5월 유가족 미사 안내  
 때, 곳: 5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순교자현양회 합창단원 모집**  
 대상: 성가에 재능이 있으신 62세 이하 교우(남성, 부부, 성가대 경험자 우대) / 활동: 순교자현양회 시복시성기원미사, 성가봉헌, 정기연주회 등  
 매월 2회 평일 오전미사 참례 가능하신 분  
 연습: 매주(월) 19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문의: 010-3898-3408 단장, 02)727-2527 사무국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생명위원회 월례미사 ·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미사**  
 1) 5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5월8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5월9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문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5월24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명동대성당 상설교회소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하느님 안에서 재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피정**  
 때, 곳: 6월3일(토)~4일(일), 성 앙베르 피정센터  
 문의: 010-5646-6594 ICPE 선교회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젊은이 쉼피정**  
 대상: 만 18세~40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6만원  
 때, 곳: 5월26일(금)~28일(일) 2박3일,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수원 본원)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19일~22일·6월23일~26일·7월7일~10일  
 ·7월28일~3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피아골 피정, 국내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전주	천호성지, 진동성당, 초남이(중 1곳)

**'렉시오 디비나 교실'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당일 피정	5월6일(토)·5월19일(금) 14시~17시
9박10일 피정	5월22일(월)~31일(수)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 역삼동성당(주차 가능)  
 미사, 안수 / 문의: 010-4667-3792 카타리나

5월12일	양창우 신부	5월19일	김인성 신부
5월26일	양홍 신부	6월2일	박용일 신부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완독	5월12일(금)~20일(토), 7월7일(금)~15일(토)
효소단식	5월25일(목)~28일(일), 6월22일(목)~25일(일)
하늘, 바람, 나(힐링 피정)	6월9일(금)~11일(일)

**교구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들(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순례	8월26일~29일(왜관-부산 8곳-마산 6곳), 9월9일~11일(대구 17곳), 10월7일~11일(울릉도-독도-왜관)
수도원 외	7월22일~24일(춘천 15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5월14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5월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문의: 010-6281-8626,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1)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때, 곳: 5월20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최황진 신부 외 3명

2) 부부 나들이 피정  
 때, 곳: 5월20일(토) 14시~21일(일) 17시,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외 3명  
 계좌: 신한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  
 금 후 연락) / 회비: 20만원(1부부, 비신자 참여 가능)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13일~15일·5월18일~20일(성모의 밤)·5월22일~24일·5월29일~31일·6월4일~6일·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7월22일~24일·8월5일~8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8일~30일·8월1일~3일, 추라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일·7월7일~10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
치유 대피정	5월13일(토) 12시30분~17시

**전진상 위로와 회복을 위한 피정**  
 강사: 이수연(AFI 회원·AMR 테라피스트)  
 때: 5월12일(금)~14일(일) 2박3일 / 문의(접수): 02)326-6000, 010-7527-1956 국제가톨릭례제회(A.F.I.)  
 곳: 전진상센터(합정동) / 회비: 7만원(선착순 접수)

1일 온전히(全)	내면으로 들어가기
2일 진실로(眞)	마주보고 또 함께 걷기
3일 언제나(常)	기쁨과 찬미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6월3일~5일, 6월23일~25일
성지순례(주차도)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9일~31일, 8월4일~6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13일(토)~14일(일), 6월10일(토)~11일(일)
3박4일	6월3일(토)~6일(화) 4박5일 5월22일(월)~26일(금)
8박9일	6월15일(목)~23일(금), 6월29일(목)~7월7일(금)
40일	10월4일(수)~11월12일(일)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때: 6월 매주(월) 9시~12시·매주(토) 13시~16시 / 인원: 각 8명  
 문의: 010-7241-2236 뚜쟁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글라렝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5월14일(일) 11시~15시, 글라렝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청년 쉼모임**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타마의 세계사도직

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5월11일~6월15일(매주) 19시30분~21시 / 회비: 2만원  
 곳: Zoom 화상모임 / 봉헌식: 6월17일(별도 공지)

2) 평화의 모후 청년 쉼모임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 대상: 미혼

**교육**

**수제 목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씀: 이주형 신부(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사제)  
 때, 곳: 5월14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강의·미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5월15일(월) 14시~16시 / 문의: 02)705-4711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주제: 에벤에제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아브라함의 생2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이어)**  
 때, 곳: 7월부터 1년간(주1회 2시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수)	신약·구약 19시30분	(목)	구약 10시
-----	--------------	-----	--------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1년 이상
여름국제캠프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매주(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가·대금 소금 단소, 생활음악악기·팬플룻 통기타·우쿨렐레·오가리나 아이리시타리휘슬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처: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2023년 대건챔버라이어 연주단원 모집**  
 Zelenka시리즈6(ZWV46,57) / 서울·인천 연주  
 문의: 010-3720-5740 총무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오션곡: 자유곡 1곡 / 대상: 60세 이하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아쿠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쿠나스 합창단(67년 창단·교구 소속 평신도 단체 / 담당 최호영 신부)이 3, 40대 새단원(각 파트 약간 명)을 찾습니다 / 오디오션: 자유곡(악보 지참)  
 문의: 010-2778-2704 총무

**2023년 제11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대상: 한국 청년 12명(선착순)  
 때, 곳: 7월4일~13일(8박9일), 라오스 라시캄학교  
 회비: 항공료(자부담), 일체비용 지원  
 5월15일까지 이메일(goons@hanmail.net) 접수  
 문의: 02)335-3332 사무국(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때: 5월8일(월) 10시30분 / 지도: 유영일 신부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문의: 02)828-3522

**성바로수도회 협력자 월레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넌)

**안내**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애니어  
 그램: 매일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꼬메스심리상담소**  
 여러 인간관계(부부), 영적, 심리적인 문제 등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단기 혹은 계속적인 상담(주1회 1시간)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까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매체상담 회당 3만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시설거주 청소년 무료 지원)

**유관단체 알림**

**다스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콜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사목자·활성화 양성연수(CAFE) 개최(햇살사목센터)**  
 주제: 코로나 이후 청소년·청년 신앙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 대상: 사제, 수도자, 평신도  
 때, 곳: 6월12일(월)~14일(수), 복자사랑 피정의 집  
 회비: 25만원(선착순 30명)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화곡2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065-3821**  
 대상: 신자로 시설물 관리, 영성, 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19) 및 이메일(hssaint@seoul.catholic.kr) 접수

**가양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659-3272**  
 분야: 관리인(계약직) / 업무: 미화, 성당 관리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소양 안전 관리·가스 전기 통신, 시설물 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방문(우 07524,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9) 및 이메일(hms6312@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CA)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업무: 인성교육 강의, 교재연구 /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근무: 6월1일~2024년 5월31일 /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or.kr/ca) 참조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자추천서, 교적 사본  
 5월1일(월)~19일(금) 17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5월20일(토) / 면접: 개별 연락  
 문의: 02)553-7320~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육아휴직 대체 직원 모집**  
 분야: 교구 언론홍보 담당 육아휴직 대체 사무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근무: 6월1일~2024년 5월31일(12개월)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초대졸 이상,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5월12일(금) 18시까지 이메일(commu@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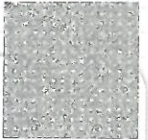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기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문자 문의) 안토니오 신부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13일(토) 14시~14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5월20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322-1830
성심수녀회	5월20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5월14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수시	수도원(정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6월4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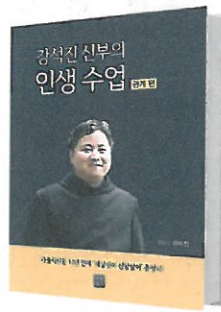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세상이라는  
제대 앞에서**

전송규 지음  
에체(따람북) | 220쪽 | 1만6천5백원  
문의: 02)2038-2633

이 책은 전송규 신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해인 2012년 한 해 동안 '매일 미사'에 '오늘의 묵상'으로 연재되어 많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글을 묶은 묵상집이다. 전송규 신부는 국화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목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국화꽃 신부'로 불리기도 했다.



신간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관계 편**

강석진 지음  
생활성서사 | 344쪽 | 2만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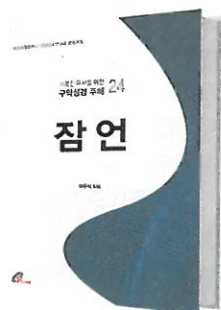
가톨릭신문에 13년간 연재한 '강석진 신부의 세상살이 신앙살이'를 총정리한 두 권의 책 중 완결 편이다.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다독이는 사제의 진솔한 체험이 '세상살이 신앙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 사목하면서 깨닫고 듣고 알게 된 사연들을 통해, 관계의 정수를 보여 준다.



신간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

로마노 가르디니 지음  
성서와함께 | 264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없는 고유한 전승인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전한다. 이 책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고 묵상한다. 철학자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고별 담화'와 '요한1서'를 묵상하여, 특별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말씀과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신간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4  
잠언**

이우식 지음  
바오로딸 | 384쪽 | 2만3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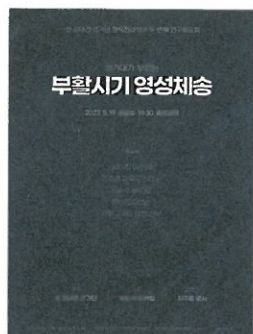
잠언의 주해서다. 입문에서는 잠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의 형성 과정, 사회적 배경, 문학적 특성과 구성 그리고 신학적 주제 등을 소개하며 잠언이 지혜오경의 기본임을 설명해 준다. 주해 부분에서는 본문 전체를 읽고 주해하여 거룩한 독서에 맛을 들일 수 있도록 이끈다.



공연  
**헤화나무와 함께하는  
클래식 포유**

입장권: 1만원(기업은행 005-116491-04-019  
(재)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신청 문의: 010-9759-0882 (문자)

<클래식 포유>가 5월 20일(토) 4시부터 80분간, 바오로딸 헤화나무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의 진행으로 5월은 가 일플레이어즈의 김성진(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영민(첼리스트)과 함께하여, 클래식 선율을 통해 음악이 주는 평화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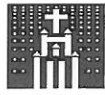


공연  
**성 김대건 성가단의 창작 전례성가  
두번째 연구 발표회  
성가대가 부르는  
부활 시기 영성체송 초연**

전석 초대  
문의: 010-4197-7441

성 김대건 성가단(담당사제 최호영, 지휘 박민식 미카엘, 반주 최주용 로사)은 교회에서 부활 시기에 배정한 영성체송과 시편을 바탕으로 일선 본당 성가대가 영성체 행렬에 부를 수 있는 29곡을 만들어 초연한다. 5월 19일(금) 19시 30분, 종로성당에서 공연하며, 모든 악보는 가톨릭 굿뉴스를 통하여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제227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성모의 밤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 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아세례 : 5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 자녀와 함께하는 연회동성당케이크 체험

일시 : 5월 14일(주일)

회차 : 11시 / 12시 30분 / 오후 3시

신청 : 자부회장 (010-2402-3759)

문자 또는 카카오톡 채널 등록 후 신청

비용 : 15,000원 / 신청 후 바로 입금

신청 131-020-537366 자부회

상세안내 및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14일(주일) 11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반디교감 (010-8081-9812)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5월 16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 바오로 시니어대학 야외행사

일시 : 5월 19일(금) 오전 8시 30분 출발

장소 : 양평 양근성지

###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3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4. 3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3	735 (35.6%)	691 (33.5%)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례회 감사헌금

故 박정신 세실리아 상가 ..... 삼십만원

### ◎ 감사헌금 (4월 24일~30일)

진영문 ..... 일십만원      진현주 ..... 오만원  
 진현수 ..... 오만원      조유선 ..... 일십만원  
 임치순 ..... 삼십만원      이승원 ..... 이십만원  
 진덕애 ..... 오십만원      이영자 ..... 오만원  
 익명 ..... 이십만원      익명 ..... 삼십육만원  
 故박정신 세실리아 ..... 일백만원

###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4주일)

교무금 ..... 11,271,000원  
 주일헌금 ..... 4,387,000원  
 성소주일2차헌금 ..... 1,731,000원

입당	136	봉헌	34,220,221	성체	501,504,506	파견	245
----	-----	----	------------	----	-------------	----	-----



주님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 자애를 베푸소서